

# KOCCA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자료 천국 KOCCA 정보자료실

## “다양한 산업정보 여기서 찾으세요”

목동 부영그린타운에 위치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산업종사자 및 학생, 연구자들에게 꼭 필요한 자료를 한데 모은 정보자료실을 지난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출판만화, 캐릭터, 음악, 모바일, 에듀테인먼트 등 국내외 문화콘텐츠 분야 약 3만종의 자료가 구비돼 있는 정보자료실을 방문해봤다.

글\_신승철 기자·사진\_이혜성 기자

**한** 국문화콘텐츠진흥원(KOCCA) 부영그린타운에 입주해있는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인 모비게이트의 김진철 3D 팀장. 오는 9월 TV 방영예정인 애니메이션 작화작업에 한창이다. 김 팀장이 작업진행 속도가 늦춰질 때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정보자료실을 찾는다. 각종 자료를 찾아보며 영감을 떠올리기 위해서다.

진흥원 정보자료실이 구축하고 있는 자료는 가히 국내 문화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자료실중 최고 수준. DVD와 VHS 등 비도서 자료 1만여종과 잡지, 백서 등 도서자료까지 모두 3만여종에 이른다. 특히 국내의 애니메이션과 영화, 뮤직비디오 등 영상 자료는 독보적이다.

### 각종 전문자료 공짜로 열람 및 대여 가능해

120여평 규모의 정보자료실에서 소장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출판만화, 모바일, 음악 등 관련 해외전문 도서자료는 1만8,300여종에 달한다.

분야별 국내 논문자료집, 영화와 애니메이션, 음악 관련 영상물(DVD, VHS, CD)은 1만여종을 넘어섰고, 국내의 문화산업관련 전문잡지 80여종도 볼 수 있다.

특히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한 각종 보고서와 산업백서, 가이드북 등 국내외 기관에서 발간된 보고서와 백서, 연감 등 전문자료 또한 탐낼만하다.

2003년 이후 진흥원에서 발간된 산업백서와 가이드북, 각종 보고서만도 61종. 게임산업개발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국내 관련기관 정보자료실간 네트워크를 통해 기증받은 서적도 300여종에 이른다.

서적과 영상물뿐 아니라 작품을 바로 볼 수 있는 DVD·VHS플레이어도 비치돼 있다. DVD플레이어 전용 플레이어 4대를 포함해 6개의 영상재생기기는 정보자료실 내에서 바로 작품 감상

이 가능한 것. 더구나 국회도서관 자료검색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 가능한 컴퓨터도 비치돼 있어 이곳에서 온라인 혹은 콘솔게임을 즐기는 ‘알뜰족’들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정보자료실 사서 임혜주씨는 “문화산업 관련 전문자료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구축했다고 자부한다”면서, “문





3



4



5

1 목동 부영그린타운에 위치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스튜디오 및 정보자료실은 1,192평 규모로 첨단 녹음시설 및 3만종의 문화콘텐츠 자료가 구비돼 있다

2 정보자료실에는 서적뿐 아니라 각종 영상자료 및 DVD·VHS플레이어가 비치돼 있다. 무료로 열람 및 대여가 가능하다.

3 정보자료실에 비치된 각종 보고서와 산업백서, 가이드북 등 국내외 기관에서 발간된 보고서와 백서, 연감, 서적 등의 자료들도 탈방한다.

4 정보자료실에서는 해외전문 도서자료 1만8,300여종, 분야별 국내 논문자료집, 영화와 애니메이션, 음악 관련 영상물 1만여종, 기타 전문잡지 80여종을 볼 수 있다.

5 스튜디오는 국내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유명 가수 혹은 연주단들이 녹음하러 자주 찾고 있다.

화산업 관련 최신 트렌드와 신기술, 제품정보를 찾는 업계 종사자와 문화산업 연구자들이 고가의 자료구입비 부담없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자랑했다.

정보자료실은 산업종사자나 일반인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일반인이 자료를 대여하려면 등록을 한 후 보관금을 지불해야 한다. 보관금은 자료를 반납하면 돌려준다. 정보자료실의 소장자료와 신착자료는 인터넷(<http://info.kocca.or.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입주자들에게 정보의 보고이자 복지시설 그 자체

목동 부영그린타운에 위치한 정보자료실은 현재 진흥원 입주업체와 연구자,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지하철과 다소 멀어 접근하기 힘든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픽셀플래닛의 양재호 팀장은 “진흥원 입주기간동안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시설이 바로 정보자료실이었다. 해외 정기간행물,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영상자료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고가의 해외전문자료 등은 초창기 회사 발전단계에서 도움이 많이 됐고, 쉽게 DB화돼 있어 이용이 편리했다”고 말했다.

입주업체의 직원들에 있어서 정보자료실은 그야말로 정보의 보고이자 복지시설 그 자체다. 각종 자료가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

니와 비싸고 구하기 힘든 최신 일본 영상물까지 대여받을 수 있어 여가 시간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경영지원팀의 이지환 대리는 “애니메이션 작업 중 일본 무사를 그리는데 예를 먹다가 정보자료실에 구비된 일본 무기와 관련된 서적 및 영상물을 모조리 열람해간 후 쉽게 구현한 사례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또 “입주업체의 종사자들은 점심시간 등의 짜투리 시간이나 주말에 활용하기 위해 각종 영상물을 대여하기도 하고, 약속 시간이 엇갈린 손님이 있으면 이곳으로 안내해 지루하지 않게 기다리게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앞으로도 정보자료실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사서 임혜주씨는 “방대한 정보수집뿐 아니라 고가의 자료구입은 업계가 콘텐츠 제작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보자료실은 앞으로도 수시로 나오는 신간과 필요한 자료를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빠른시일내에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많은 이용자들이 경제적, 시간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보자료실과 같은 층에 위치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스튜디오는 국내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유명 가수 혹은 연주단들이 녹음하러 자주 찾고 있으며, 앨범의 DVD 코딩작업에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